

불교계 이주여성 취업 지원 나선다

지혜로운여성, 7월 2일부터 서울내 이주민여성 대상 가족애착놀이강사 양성 교육



지혜로운 여성은 '가족애착놀이 강사 양성 교육'을 통해 이주민 여성의 취업지원과 다문화가족의 소통, 언어와 육아의 어려움을 돕는다.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는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언어(25%), 경제(21.1%), 자녀문제(14.2%)를 꼽았다고 발표했다. 최근 불교계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해 이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 사)지혜로운여성은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30명을 대상으로 '가족애착놀이 강사 양성 교육'을 통해 일일교사 활동 지원에 나선다. '가족애착놀이 강사 양성 교육'이란 여성결혼이민자가 지역사회 기관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애착놀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가족애착놀이는 놀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소통하고, 여성결혼이민자가 겪는 언어와 육아의 어려움을 돕는다. 참가자들은 이런 교육을 통해 일차적으로 언어·문화적 차이를 극복 ▽가족의 애착관계 형성 ▽자존감을 회복한 후, 지역사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관 등에서 '가족애착놀이' 강사로 나서게 된다.

프로그램은 1960년대 미국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심리치료프로그램 테라플레이(theraplay)에서 착안됐다. 당시 미국은 불우이동에게 가난이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고, 교육 기회균등을 위해 이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빈곤층 자녀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심리적 불안감에 시달리면, 그들이 결국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강사로 나선 홍정애 홍정애치료놀이상담센터 소장은 "한재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자신감·자존감이 부족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언어·문화적 차이로 가족 간 소통이 단절된 경우도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치료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프로그램은 단순히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뿐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돕는다"고 밝혔다.

하현정 지혜로운여성 사업팀장은 "다문

화가정은 사회적으로 관심과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에게 국제결혼으로 발생하는 가족 내 언어·문화적 차이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과 관계향상을 도와 건강한 다문화가족 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향후 다문화가족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가족애착놀이' 프로그램을 교육을 받은 후, 매월 가정에서 과제수행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가족관계 향상과 강사양성 실습효과를 동시에 거두게 된다. 이밖에 여성결혼이민자는 스피치발성교육과 직장생활 기본예절 등 취업 교육을 함께 받아 한국사회 직장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지혜로운여성은 다양한 국적을 가진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해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등 3개 국어로 '가족애착놀이 활동 교사용 지침서'를 제작할 예정이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일일교사로 활동 시 교재를 교사용 지침서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교재를 통해 각 가정에서 애착놀이를 반복해 관계향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주영 불교여성개발원 사무처장은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불교계 종립학교와 복지관, 다문화가정 자녀 취학학교 등에 여성결혼이민자 일일교사 추진방안과 방과후교실운영 등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현정 서울은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장은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은 단발적인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기회를 토대로 불교계의 다문화가정 지원이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프로그램은 서울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에서 7월 2일~10월 8일 매주 월요일마다 실시되며, 총 12회 강연으로 진행된다.

한편,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여성광장' 건립과 여성불자 전문 교양지(우바이예찬) 발간 기금 마련을 위해 6월 20~21일 서울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 갤러리에서 제5회 불교여성개발원 바자회를 진행한다. 바자회에는 예술작품, 도서, 다기, 차, 천연한지수,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이 판매될 예정이다. (02)722-2102

이은정 기자 soe94@hyunbul.com

“孝 통해 시대 변화 앞장설 터”

대불청, 6월 9~10일 제31차 전국불교청년대회 성료



대불청은 화성 용주사 일대에서 6월 9~10일 제31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본 대회에서 최우수 지구 및 지회로 뽑힌 수상자들의 모습이다.

“효는 인륜의 근본이다. 모든 생명은 부모로부터 나오며, 부모의 보살핌으로 성장하며, 부모의 은혜로 살아간다. 지극한 부모의 은혜를 받조하는 도리가 바로 효이며, 경교효전의 아름다운 전통이다.”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모님에 대한 10가지 은혜가 담겨있다. 6월 9일 경기도 화성 용주사 앞마당에서 청년불자들이 부모의 크고 깊은 은혜를 되새기며 우렁찬 목소리로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을 낭독하고 있었다.

청년불자들, 효행문화 선도 나서

孝, '인류가 간직해야할 자산'

용주사 일대 효문화성지 개발 주장

6월 11~15일 열린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회를 앞두고 대한불교청년회는 민족문화수호의 기틀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 이하 대불청)는 창립92주년을 맞아 6월 9~10일 용주사와 화성지역 일대에서 '청년 21세기 후를 노래하다'를 주제로 제31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했다.

본 대회에는 조계종 포교부장 송묵스님, 기획실장 능도스님, 용주사 주지 정호스님, 정우식 대불청 회장, 우호철 대불청 경기지구회장, 폰차이 세계불교도청년우의회 회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정우식 회장은 대회사에서 “불교의 '효'는 타종교와 달리 연기법에 기초해 '참회'와 '소통'에 주목한다. 사회의 기초 단위로 가정에서부터 인연의 소중함을 자각하고 '효'가 실천된다며 계층, 세대, 민족 분단의 갈등도 능히 해결되리라 믿는다”며 “앞으로 '참회'와 '소통'으로 21세기 효행문화를 선도하는 청년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불청은 효 문화성지 선포문을 통해 “21세기 중심사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효 사상은 민족과 종교, 시간을 뛰어넘어 인류가 간직해야 할 중요한 정신적 자산”이라며 “후손들이 효 사상을 배우고, 이를 사회에서 실천할 때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갖춘 민족·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용건릉과 용주사 일대를 문화유산으로 전승해, 인륜의 근본인 효사상을 선양하며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보존 계획해야 한다 ▷용건릉과 용주사 인근에 진행 중인 주택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효정신문화 교육환경을 공공사업으로 전환하라 ▷효정신의 역사문화가 계승 발전돼 대한민국의 정신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청년부터 앞장서 실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러 본 대회에서는 각 지역 최우수지구 및 지회, 우수회원 등 12개 분야를 선정해 불청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번 불청대상 수상자는 매동한 대불청 지도위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을 마친 후에는 각 지회 및 지구별 축하공연과 효 소원지 소각의식 등이 이어졌다.

한편 이번 행사는 국내 유학중인 외국대학생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세계문화유산 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한국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 제6회 퀴즈대회 '범종을 울려라', 사진전, 빈그릇 운동·한국문화 알리기, 어린이 템플스테이, 화성행궁 투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이밖에 6월 10일 수원화성 박물관 야외 공연장에서는 해빈 스님과 연태영 수원시장이 '우리시대 문화란 무엇인가' '젊은이가 가져야 할 비전을 무엇인가'를 주제로 좌담이 마련됐다. 해빈 스님과 엄시장은 현 젊은 세대들이 어떤 시각으로 사회의 흐름을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용주사=이은정 기자

“커피나무 심어 마을 경제 살려요”

더프라이스 네팔 지역개발 사업 실시

국제개발기구 NGO 더프라이스가 시민참여형 프로젝트 '네팔 산간 오지 마을 커피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6월 2일~10일까지 열린 이 행사는 다딩 지역 카툰제 산간 오지 마을 등지에서 진행됐다. 더프라이스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교육비와 마을 개발 기금을 마련해 마을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더프라이스 홍보담당 이현주 씨는 “카툰제 마을 저소득 가정에 커피나무를 심어 농가 수입을 창출하고, 그 수익금으로 저소득 가정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자립형 지역 개발 사업을 만들고자 마련했다”며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또 이번 프로그램에는 한국의 자원봉사자들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프라이스는 “봉사자들이 빈곤국 체험을 통해 국제구호의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UNDP 2011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네팔은 빈곤선(1일 \$1.25) 이하에서 생활하는 인구 비율이 78%를 차지하는 최빈국이다. 네팔의 빈곤은 지형, 농촌간 격차, 성, 민족, 카스트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 산맥에 인접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산간 지역의 저발전 문제가 심각하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동국대 이색 방학강좌 ‘간화선 집중수행’

하루 10시간씩 8일간...안국선원 수불 스님 직접 지도

여름방학을 맞아 동국대가 간화선 집중수행을 주제로 이색 계절학기 강좌를 개설했다.

동국대(총장 김희옥)가 계절학기 강좌로 간화선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기로 했다.

강의는 7월 9~16일까지 8일간 오전 9시부터 하루 10시간씩 동국대 국제선센터 법당에서 진행된다.

지도법사로는 안국선원·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이자 범어사 주지인 수불 스님이 나설 예정이다.

강의내용으로는 △입제화두법문(발보리신) △화두란 무엇인가, 선지식(善知識)의 역할 △간절한 마음, 신심의 중요성 △

분심의 중요성, 화두 의식의 중요성 △일념만년 집중하기, 의정과 회광반조 △의단독로, 화두참구 시 주의사항, 망상 △화두참구 시 주의사항, 환심·식광 △대승 불교의 꽃, 돈오 등 소참법문과 함께 실참과 지도가 함께 진행된다.

동국대 국제선센터 관계자는 “20여년간 안국선원에서 2만여명에게 간화선을 지도하고 있는 수불 스님이 직접 강의해 대학생들에게 간화선의 진가를 알릴 예정이다”라며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로 지친 학생들이 간화선 실참을 하며 자신과 꿈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 단체주문 책도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사은 행사

정골요법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무료증정품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이 운동으로 죽을 병 고친사람, 몸이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강해진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하면 제 병을 제가 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 운동은 무병장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빛살림 척추교정운동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녹아버리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골격이 비뚤어져서 생기는 병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모든 내장질환의 발병원인은 골격이 비뚤어져 척추 신경이 눌려서 발생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중다는 곳 다 다녀보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도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의 종결 코-스

침, 뜸, 부항,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요법, 무중력감압치료, 수술을 받아도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료받을 때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재발하는 이유는 척추를 감싸고 있는 기립근육을 풀어주지 않고 척추의 토대인 골반을 바로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 골격을 바로잡아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십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좌골신경통, 갑상선, 관절통, 고혈압, 당뇨, 안면마비, 위장병, 수족냉증, 두통, 이명증, 전립선, 피부병, 백반증, 아토피, 알레르기, 건선, 부정맥, 만성피로, 상기증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중다는약 다 먹어봐도 병이 낫지 않는다면 몸속을 대청소하라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짝차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요법 공개!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썩~ 뽑아내서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20여년간 수십만명이 체험한 건강법을 지도 합니다. 단, 한번만 체험해 보시면 곧바로 확신이 옵니다.

이 운동으로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발가락 운동과 뱃속의 단단한 덩어리인 척추(냉직)를 쉽게 푸는 법 수록
- ▶ 양쪽다리 길이가 길고 짧은 것을 손쉽게 바로잡아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고 전신의 막혀 있는 경혈을 뚫어서 질병의 뿌리를 뽑는 법 수록
- ▶ 약어가족같이 단단해진 어깨근육, 기립근육 좌골근육을 아주 쉽게 풀어서 통증을 뿌리 채 뽑는 법 수록
- ▶ 단침이 몽글몽글 솟아나며 전신의 자장을 높이고 몸속의 냉기를 확 뽑아내서 체온을 높여주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 책 구입안내
책값 12,000원을 입금하시고 전화로 주문하시면 책2권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예금주 김 순 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신면 구리리 901 소백산수련원

책신청 : (054)637-9810

정골본기(이영옥) 서울성수동1가 14-35(우영빌딩4층 제210호-서울성동 0204호)